



중국의 환경분야를 돌아보고

＝ 두번째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18일간 연변대학(延邊大學) 40주년행사 초청을 받고 중국을 방문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백두산(중국측 장백산)을 다녀올 수 있었다.

우리 민족 180만이 살고 있는 중국 길림성 연변지방은 조선족자치주로서 한국인들의 생활상이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

자치주 수도는 인구 20만명인 연길시인데 8월 중순인데도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의 대자보가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중국은 산악제한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환경보전을 국책의 중요시책으로 내걸고 있다.

국무원(내각)기구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있고 각성(省) 정부에 환경국이 설치되어 대기오염 수질관계를 관장하고 있다.

자연보호는 산림부라는 임업부가 야생동식물분야까지를 관장한다.

작년에는 수법(水法)이 공포되어 수질문제 일색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메스컴에까지 떠들석했던 일이지만 물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호텔 욕실까지 시간을 제한하는 등물의 보호에 열중하였는데 금년에는 토지문제를 중요시책으로 결정하고 토양보전 등에 열중하고 있었다.

중국의 환경정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법규내에 명시된 벌과금 제도가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오요한/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이사

는 점이다.

가령 공장(석현제재소의 경우)에 출근하는 공원들은 입구에서 화기 즉 라이타, 성냥 등을 전부 보관시킨다. 위반시는 벌과금 30 원—중국돈—(한달 월급이 백원정도)을 사정없이 징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철저히 준수한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연길시공원에 들어갔을 때 표를 받는 부인이 주정부 환경국장 부인이라는데 월급을 받고 일하며 공원내에서의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었다.

백두산은 정부승인없이 함부로 드나들수 없게 되어있는 자연보존지역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태계 조사차 다녀왔다.

정책면은 사회주의국가인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는데 환경교육면에서의 기술분야 등은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는 연변대학교에서 정총장 인문계학과장 등과 요담시 자연히 논급되었다.

참고로 연변지방대학을 보면 의과대학인 연변의학원이 따로 있고 농과대학인 연변농학원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연변대학교는 전기 두 대학인 학원 이외의 문과, 공과, 예능, 사범대학으로서의 분야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이다.

실험실 등 40년간의 노력끝에 중국 내에서도 우수한 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스톡홀름대학교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대학과 결연관계를 정식으로 협정체결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뚜렷한 협약이 없는듯하다.

필자는 일행 12명과 함께 총장, 학과장과의 요담시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통일원 산하단체 민족문화통일회위촉, 외무부 산하단체 동방문화교류협회 병설)로서 앞으로 자료교환, 상호방문 등에 관한 상호 양해를 얻을 수 있었다.

환경문제 특히 생태학 등의 과목을 앞으로 설치할 것도 희망하면서 한국을 떠날때 환경보전협회

홍보부로부터 가져간 협회안내 및 개요책자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책꽂이 백개와 스티커 등을 증정하여 환영을 받았다.

중국에는 환경보전협회나 자연보호협회 또는 국립공원협회 등 민간 단체들이 없다.

다만 국제기구와의 관계유지에 꼭 필요했음인지 야생동물보호협회라는 단체가 하나 있을 뿐이다.

민간단체라고는 하나 중앙회장은 장관인 임업부장(산림장관)이 지방 각 성(省) 정부의 장이 지방회장직을, 실무는 산림청장(임업청이라고 한다)들이 맡고 있다.

가령 백두산의 경우 그곳은 유네스코와 협약특수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엔기구나 합동으로 이미 생태 조사 등이 끝나 있었다.

필자는 이도백하(二道白河)에 있는 백두산연구소와 그곳 박물관에서 많은 자료를 이미 작년에 입수한 바 있으므로 정리되는대로 출판할 예정이다.

백두산은 학자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승인없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게 되어 있는 자연보존지역이다.

하물며 몇일동안의 천지관광일정으로 길바닥 식생 몇몇을 사진 촬영해서 생태계조사 운운하는 최근의 서울 일간지들 보도에는 가가 대소할 수밖에 없다.

백두산 중국측은 연변조선족 자치정부 임업관리청(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다.

실무자인 임업청 담당관들과의 사진이나 문헌은 앞으로 필자가 구상하는 백두산지에 발표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백두산 등 중국 각처를 다녀왔다.

앞으로는 환경분야의 학자들의 중국방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필자는 이런 뜻을 연변대학측에 전달했고 협회측에도 알렸다. 조만간 환경분야 학자들의 중국방문이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